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잇는 자들
THE DREAMER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단원 모집

오디션 일정
22년 11월 15일, 오후 7시,
사회복사관 5층(세미나3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가장 높은 땅, 네팔에 다녀오다

<2022 청년선교국 해외 단기선교> 10월 9일~15일까지 진행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2022년 하반기에 태국, 몽골, 네팔 3개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였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250명의 청년이 응답하였고, 24명은 '가는 선교사로, 226명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지난 10월 9일(주일) 저녁 9시, 이번 단기선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우기 위하여 네팔선교팀이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번 선교를 위하여 몇 달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였고, 6박 7일의 일정 동안 네팔감리교회(NMC)의 현직 감독이신 수먼 고우덤 목사와 동행하며, 감리교신학교 집회, 영생감리교회 봉헌 예배(61번째), 세계선교감리교회 부흥회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였다.

2021년 청년선교국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해외 100교회 건축> 비전에 따라 네팔 지역에 2개의 교회를 지었다. 네팔 북부지역인 거이리단트에 위치한 끼이랄리감리교회(60번째)는 청년들과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오병이어를 모아서 건축하였고, 고르카지역에 위치한 영생감리교회(61번째)는 한 권사님 가정에서 향유옥합을 드림으로 봉헌하게 되었다.

이번 네팔 단기선교팀은 영생감리교회(61번째)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한 교회를 돌아보고, NMC 본부 임원들과 지방 감리사와 함께 봉헌예배를 드렸다.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차로 5시간가량 이동을 한 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영생감리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현지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선교팀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었다.

차준희 청년은 "그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서 해외선교의 필요성과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문효정 청년은 "네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교를 지상명령으로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선교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해외선교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권소리 청년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춰있던 단기선교가 다시 열린 올해,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해외선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 있을 단기선교의 모든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였다.

청년선교국은 2023년 1~2월에 5개 국가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군부 구테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에 '야웅뽕다 감리교회'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선교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는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비전에 따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해외100교회건축 후원계좌번호
우리는행 1005-504-092750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

“사랑을 실천하라”

“...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잠언 11장 25절)

한 대학 교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 부부가 크게 다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부인은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 들었습니다. 기관사가 사람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걸고 기차를 세웠지만 이미 어머니는 죽어 있었고, 그 옆에 아이는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버지도 말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홀트 아동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수술을 해서 겨우 살려 놓기는 했지만 입양이 문제였습니다. 두 다리가 잘린 아이를 입양할 가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겠다고 알리자마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입양하시겠습니까?”, “네 입양하겠습니다.” 그 집에 보내진 아이는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이가 의족을 한 채 천사의 미소를 띠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 사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또 10년 후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사진이 왔다고 합니다. 그의 양부모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했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 아이는 절망을 이겨내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와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 사랑을 행할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창 12: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누리길 간직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책임, 곧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25절
24. 흠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라
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둘째,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라.

홀트 아동복지회는 한국 전쟁 후에 전쟁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 생겨난 입양기관으로 홀트 부부 해리 홀트(Harry Holt), 베르사 홀트(Bertha Holt)가 창설했습니다. 홀트 부부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홀트 부부는 좀 더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우연히 한국 전쟁기록 영상을 보게 된 이후로 고아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홀트 부부의 입양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가정이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했고, 1960년 홀트양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 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커지고 그 결과는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에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셋째,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라.

사랑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정신과 몸 그리고 삶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누는 일은 곧 행복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베풀 때 행복은 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베풀지 않고 쥐고 있으면 결코 행복은 더 커지지 않고 그저 손 안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란,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재물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꼭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진정한 가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목회 계획세미나 개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주제로 열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는 새해의 목표를 준비하는 <2023 서울남연회 목회계획세미나>를 10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3박 4일간 대전 파로스 콘도에서 개최했다.

서울남연회 본부가 주최하고 서울남연회 감리사협의회와 한국목회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3박 4일 동안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 강의와 세번의 아침 기도회, 세번의 영성집회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영성을 기르는 한편 코로나 이후로 위기를 겪고 있는 목회 현장에 새로운 방향을 세우고 새해에는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다같이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개회사에서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우리 앞에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과 대안의 부재만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목회는 대안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할 때 길이 보인다. 세미나 기간 동안 교회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서로 연대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지 함께 모여 목회적 고민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서 박용보 감리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거센 풍랑이라는 고난

을 만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교회마다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신 사명과 전도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를 비롯, 4명의 강사들은 ‘New Church Revolution, MZ세대를 이끄는 영적 리더십, 공동체 성경읽기, 광고를 통한 복음전도’ 등의 강의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인 18일에는 보령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남연회 감독배 축구대회와 서울남연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목회자의 단합을 도모하고 위축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감리교 11개 연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년 새해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계획세미나가 10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열렸으며, 총 8회의 강의를 진행되었는데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첫 번째 강사로 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고3·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0월 8일~11월 16일까지
웨슬리관 고등부실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종강
4주간 진행된 유앙겔리온 전도학교가
10월 9일 종강했다.



실업인선교회 전문인 초청 특강
10월 23일 김희진 권사(신경과)가
실업인 선교회원들에게 뇌졸중에
대한 건강강의를 했다.

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 이·취임식

광림교회에서 10월 27일~28일까지 열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10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10월 28일(금) 오후 4시까지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개회 예배는 이철 감독회장의 인도로 청년회전국연합회장인 김도원 성도가 기도를 하였으며, 광림교회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4-17)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어느때보다 어려웠던 지난날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불의가 득세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성찬순서에서는 12개 연회감독의 보좌로 참석자들은 개별적으로 미리 나누어준 성찬 키트로 성찬예식에 참여했다.

특별히 감리회 본부에서는 “지구의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솔선수범하는 뜻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총회를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컵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총회 첫날 회무처리에서는 공천위원회 보고

와 함께 총장 인준, 본부 보고, 자치단체 보고, 기관 보고 및 감사 보고가 있었고, 각 기관 이사과 위원 파송 업무를 처리하였다.

둘째날 회무 처리로는 본부 감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입법의회 회원 및 공천위원 선출도 병행하였다. 이어 감독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는데 제34회 총회 감독이었던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을 포함한 12명이 퇴임하고 새로 선출된 제35회 총회 감독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김정석 감독은 10월 12일 감리회 선교국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갖고 총회 임기를 마무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선교국 위원들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득섭 기자



담임목사 동정



- 10/11 기독교대한감리회 2023 목회계획세미나
- 10/14 서울남연회 감리사협의회
- 10/15 추계산상기도회
- 10/16 연천지방 영성수련회
- 10/17-20 2023 서울남연회 목회계획 세미나
- 10/21 감리교본부 선교국위원회
- 10/27-28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 감독 이·취임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이 땅을 고쳐주소서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5일 (토) 오후 5시, <추계산상기도회>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의 긴 어둠을 뚫고 3년 만에 이뤄진 은혜로운 행사였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10

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찬양과 예배, 2부 기도회로 드린 추계산상기도회는 23명으로 구성된 스테반 가족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시작되었다. 소프라노 정혜민 성도, 테너 길현봉 성도의 특송과 남성성가단의 힘찬 찬양이 본당 가득 울려 퍼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역대하 7장 11-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솔로몬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켰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시듯 역병과 환란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켜주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공물을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이 바뀌고 기쁨이 넘치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2부 기도회 순서에서 나라와 민족, 복음적 통

일을 위해 먼저 기도했고 한국 교회를 이끌 영적 능력과 힘을 광림교회에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또한 동탄광림교회, 잠비아선교센터가 아름답게 봉헌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했으며 아픈 환우들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연 장로는 "3년 만에 진행된 추계산상기도회에서 열정적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김정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 뜨겁고 시원한 기도회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유병권 기자

<여선교회총연합회> 추계선교바자회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화) 밀레니엄광장에서 동탄광림교회 성전건축을 위한 추계선교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개체선교회로만 진행했던 추계바자회에 비해 선별된 외부업체와 즉석식사 코너를 추가로 만들어 코로나 이전 바자회 모습에 가까웠다. 시간별 경품추첨과 새신자 환영코너를 만들어 새신자나 바자회 전단지

를 오는 성도들에게 별도의 선물도 증정했다. 이번 바자회는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배와 전도의 회복과 일상의 기쁨을 회복함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여선교회총연합회장 이화열 권사는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이번 바자회는 본질적으로 판매와 수익보다 전도와 회복이라는 비



전을 지향했습니다. 펜데믹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한 성도들과 전도대상자를 마음 놓고 초대할 수 있게 하고 정겨운 장터, 편안한 휴식과 대화를 나누는 쉼터를 만들어 적막한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식사도 3년 만에 재개했고, 새신자 환영에서 약 70명을 환영했고, 전도를 통해 약 20명

의 전도대상자를 새로 얻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준비과정에서 임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대로 바자회에서 성전의 틀을 밝은 모든 영혼들이 믿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바자회수익금은 전액 동탄광림교회 건축에 쓰이게 된다.

백명순 기자

<사랑부> 발달장애 화가 박진수, 진우 쌍둥이 형제



"저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져요. 저의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평온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박진수 화가는 말한다. 박진수, 진우 형제는 1992년생으로 ADHD 장애가 있다. 19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 소개로 광림교회 사랑부에 처음 왔다. 광림교회 사랑부 이레센터는 만 20년 전 치료



목적으로 다양한 수업을 시작했다. 치료를 위해 시작된 여러 수업 중 미술수업이 발전하여 현재는 발달장애 화가들 25명이 함께 모여 배우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진수, 진우 형제도 광림교회 발달장애 화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시회를 했고, 올해에도 여러 전시회가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초청 전시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섬세하고 뛰어난 색감으로 박진수 화가는 평소 여가 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미디어 매체를 통해 명화를 감상하면서 기법이나 색감 등을 공부하며, 예술 감각을 키우고 있다. 대상이 가진 느낌을 자유롭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다양한 선과 섬세한 색감을 통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표현한다. 또 색감이 뛰어난 다양한 색들을 섞어서 만들어 쓰는 것을 좋아한다. 상식이 풍부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며 전시회에서도 자신의 작품세계를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한다. 전체적인 느낌을 살리는 기법으로 대담하게 박진수 화가는 어릴 때부터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만지는 것도 싫어했고, 연필로 선을 그리려고도 하지 않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다. 쌍둥이 형제 진수가 옆에서 그림을 그려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젤에

큰 작품을 작업하고 있다. 대상의 형상을 자세히 그리기보다는 선의 굵기와 길이를 조정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살리는 기법으로 자신만의 강하고 대담한 남성미가 넘치는 작품을 하고 있다. 그림을 그리면서 소심하던 성품이 적극적이고 대범해졌으며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광림교회 사랑부에서 이은경 선생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주 오랫동안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화가라는 소리를 들을 때 로드매니저로서 힘이 나고 행복해요"라고 박진수, 진우 화가 엄마는 말한다. 형제 화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하는 전업화가로서의 미래가 크게 기대된다.

이정순 기자

사랑부

믿음으로 하나된 사랑부 가을운동회

사랑부 학생 교사 150여명 모여 은혜 가득한 시간가져



가을색이 완연해진 지난 10월 22일(토), 대성리에 위치한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광림교회 사랑부(위원장 우형진 장로)의 '2022년 가을운동회가 열렸다.

사랑부 연례행사 중 하나인 가을운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번 가을운동회는 오랜만에 진행된 사랑부 야외 행사라 그런지 많은 학생들과 가족,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비전랜드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부 김성산 목사는 시편 133편 1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되는 가을운동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성전에 오르며 찬양한 시로,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교제할 신앙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며, "오늘 가을운동회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을운동회의 시작을 알렸다.

예배 이후 사랑부 가을운동회의 본격적인 순서가 진행됐다. 걷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국제광림비전랜드의 숲 속을 거닐며 밤줍기 체험과 보물찾기 활동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점심을 먹고 믿음팀과 소망팀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가을운동회가 시작됐다. 바구니에 공 넣기, 큰 공굴리기, 줄다리기, 축구를 진행했는데, 사랑부 모든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경기에 참여해 화기에 애한 시간을 보냈다. 가을 하늘 아래 달리며 웃음꽃이 활짝 폈고, 승부와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무르익는 가을운동회의 순간을 즐겼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다리던 경품 추첨 시간을 통해 참여한 사람 모두 양손 가득

선물을 받고 기쁨을 나누며 가을운동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됐다. 사랑부 우형진 장로는 "가을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었던 운동회가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그동안 사랑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돼 학생과 선생님 모두 아쉬움이 컸는데, 앞으로는 진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를 상황에 맞게 기획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랑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3년간의 공백을 깨고 개최된 사랑부 가을운동회는 김성산 목사의 시작 예배 말씀이었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구절처럼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는 사랑부 가족들의 모습에서 선하고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한혜선 기자

신앙 간증

좁지만 밝은 길

저는 사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소원을 빌고 원하는 것을 얻고, 마냥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강해야 하며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뜨거운 전도의 사명을 갖고 고린도에서 강론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사도바울을 위로하고 독려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어려움과 유혹 그리고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였습니다. 혼자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이 길이 잘못된 길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고개를 들어보면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고군분투하며 나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동역자들을 보면 어두워 보이지만 했던 좁은 길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길은 더 이상 마냥 좁지만 한 길이 아닙니다. 좁지만 밝은 길입니다.

이러한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또한 누군가의 좁은 길에 밝은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모여 광림교회 청년부가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장찬희 속삭(청년부)

교회학교

전도의 통로, 제2회 KLCS 풋살대회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제2회 KLCS(KwangLim Church School)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10월 16일에 예선전, 23일에는 본선과 결승전이 치러졌으며 30일 오후 4시에 마지막 이벤트 경기와 시상식 및 속도 측정기(스피드건)를 활용한 슈팅 게임 등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사회봉사관 3층에 있는 풋살 경기장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풋살 경기가 펼쳐졌다. 풋살 경기에는 새 친구 12명을 비롯하여 총 43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저학년 4팀과 고학년 4팀, 총 8팀이 경기를 펼쳤다.

교육국 임재철 목사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에게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상대방을 딛고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

기할 때 상대를 배려함에서 오는 기쁨을 알기 위함입니다. 경기 중 질서를 잘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 선수를 배려하시길 바랍니다"라며 시편 133편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풋살대회는 각 부서의 간식 후원과 많은 교사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난 봄 풋살대회보다 선수들의 기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 특별히 선수들은 이번 경기부터 각 출전팀의 팀명을 정해 팀의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환호와 함성, 탄식 소리가 가득한 풋살 경기장에는 많은 학부모와 참여 선수들의 가족이 경기를 관람하며 힘차게 응원했다.

저학년 팀 '몽쳤다 FC'의 여자 선수인 김민서(유년1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이번 대회

에도 참가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경기를 잘해서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경기해서 감사해요. 다음번에도 꼭 참여할 거예요!"라며 참여 소감을 나눴다.

고학년 팀 '간부' 소속 선수 감다엘(초등1부)은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 지난주보다 점수 차가 적게 나서 발전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팀에도 제가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라며 2회 연속 풋살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전했다.

고학년 우승팀인 '축구벤처스' 선수인 김유하(초등1부)는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우승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다음에는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와 함께 경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풋살대회가 정말 기다려져요"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 전도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KLCS 풋살대회는 내년에도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교육국을 위한 성도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박희운 기자

목회현장

유양겔리온 페스티벌
“복음” 아름다운 선물



강명남 목사(광림남교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 9:16)

사도바울은 전도에 대해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는 “I am compelled to~”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부담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전도가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닌 즐거운 특권으로 여기는 바울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님의 강한 역사 아래에서 잠시라도 그 의무에서 벗어나 쉬 수 없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거룩한 사명과 부담을 안고 전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자, 우리 삶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림남교회는 10월 한달간 유양겔리온 페스티벌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인 가을운동회 with TenTen을 비롯하여 매주 주일저녁예배시 전도교육, 간증집회(정운택 선교사, 손경민 목사), 가을음악회를 열어 전도를 위한 좋은 기회이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1선교구는 가까운 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매주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탄광림교회 건축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교회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가족이나 가깝게 교제하는 이웃 분들에게 전하는 관계성 전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말씀처럼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무겁고 힘든 명령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광림남교회

<가을운동회 With TenTen>



2022 광림남교회 <가을운동회 With TenTen>이 10월 10일 광림수도원 운동장에서 450여 명이 모여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교회의 활력을 되찾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소속감을 증대시켜 연합의 정신을 회복케 할 뿐 아니라 10월 총력전도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도원 운동장을 정비하고 설비를 갖추었으며, 특별히 믿음의 다음세대인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다’라는 구호로 교회팀(51, 54교구)과 소망팀(52, 53교구)으로 나누어 제1부 만남의 장(개막찬양/입장/예배/선서/개막선언) 제2부 축제의 장(명랑운동회 1부/2부)이 진행되었고, 애찬관에서 식사후 마리오네트 공연을 관람하며 아이들 함께 즐거운 공연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3부 화합의 장(시상/경품추첨/폐회예배/교구별 경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날부터 쏟아진 비와 추위를 막고자 천막을 추가 설치하고, 교회 난로를 긴급 조달하였으며, 우비와 농사용 부직포를 운동장에 설치하여 오랜만에 열리는 가을운동회를 빛나게

하러 애쓰는 준비위원들의 열정에 하나님은 맑은 가을하늘을 예배 시작하는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과 남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물질 후원참여에 힘입어 진행된 가을운동회를 통해 남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성도님들간의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학교가 아이들로 가득차고 청년부, 청장년부의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경기남부지역의 복음사역을 책임지는 역동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진서 권사(광림남교회)

남성성가단

찬양의 용사들이 모인 영적 친교의 시간



가을의 초입이었던 지난 10월 3일(월), 경기도 파주 벽초지수목원에서 남성성가단 영성수련회가 열렸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우리는 찬양한다’를 외치며 준비했던 이번 영성수련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축한 가을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찬양의 용사들과 가족들이 버스 두대를

가득 채워 벽초지수목원으로 향했다. 날씨가 허락했다면 가을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모두 버스 한 곳으로 옮겨 수련회 시작을 예배로 열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렁차게 부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찬양했고, 성가대 수석 성은경 장로가 시편 100편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남성성가단의 성장 부흥을 위한 필요 다섯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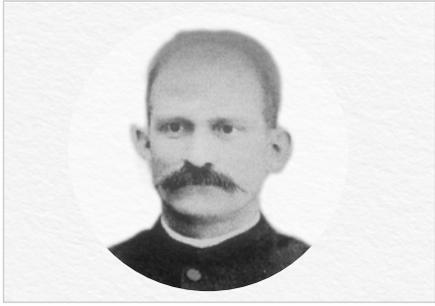
지 ‘A to E’를 제시하며, A(Attendance: 출석), B(Brotherhood: 형제 동료애), C(Concern: 관심), D(Dedication: 헌신), E(Enthusiasm: 열정)로 힘쓸 때 우리의 찬양은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적지 벽초지수목원에 도착해 잘 가꿔진 동서양의 아름다운 야외정원을 둘러보고, 서대화 권사는 성가단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여전히 제법 쌀쌀한 가을비가 흩뿌렸지만 수목원 곳곳을 돌아보며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수목원 순례를 마친 뒤 단체사진을 찍고, 점심식사 후 영성수련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행사를 마치면서 영성수련회에 참석한 남성성가단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친교의 시간이자, 신앙 공동체임을 새삼 확인하며 마음과 마음으로 교감한 결속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구본홍 권사(남성성가단)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10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은 미감리회 해외선교부에서 조선에 파송되는 첫 번째 선교사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메리 플레처 스크랜턴(Mary Fletcher Scranton, 1832-1909)과 함께 조선에 들어와 의료사업과 교육사업, 복음전도를 통해 전심을 다해 조선 백성의 친구가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의사이자 목사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일

본을 거쳐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사실 서울에 먼저 들어와 선교의 기틀을 닦은 것은 스크랜턴입니다. 아펜젤러 부부가 갑신정변의 여파로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스크랜턴이 먼저 서울에 도착해 제중원에서 알렌을 도와 의사로 활동한 것입니다. 그는 1885년 9월 10일부터 정동에 새로 마련한 집에서 진료활동을 시작하였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문턱이 낮은 병원으로 명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1886년 6월 15일 정동에 새 병원 건물을 마련하기까지 52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1887년 조선 정부는 '시병원(施病院)'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공인했습니다. 또한, 스크랜턴은 아펜젤러가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준비하고, 의료선교사이자 목사로서 아펜젤러를 도와 복음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을 설립하였고, 전덕기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성장 배경과 선교사가 되기까지

윌리엄 스크랜턴은 1856년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은 감리교회 목사 집안의 딸로 신앙심이 매우 깊었는데, 윌리엄 스크랜턴이 열여섯이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41세의 나이부터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도 교회 봉사와 선교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윌리엄은 잘 성장하여 예일대를 졸업한 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뉴욕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가정에 일본에 있던 매클레이 선교사로부터 조

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으나 윌리엄 스크랜턴이 장티푸스에 걸려 투병하는 동안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를 간호하던 어머니 스크랜턴의 역할이 컸고, 또 그의 아내 롤리암즈 부인이 남편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최초의 선교사로 인준되어 목사안수를 받고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두 살 된 딸과 함께 1885년 2월 3일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병상에서의 치유의 경험과 가족들의 격려와 헌신으로 조선에서의 귀한 선교의 첫 삽을 떴을 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개척선교사로서 초기 한국 선교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실업인선교회

삶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영성수련회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얼마전 작고한 이어령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읽어도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성은 또다른 문제의식을 낳으며 성장해가고, 영성은 쌓일수록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진리. 신앙인들이 늘 기도와 함께 영성을 '수련'해야 할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위원장 권후원 장로)는 이러한 이유로 매년 봄과 가을 두 번, 국내외를 여행하며 영성 수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세 차례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구약)과 유월절과 오순절의 예루살렘 방문(신약)을 벤치마킹(?)한 실업인선교

회만의 전통이자 신앙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금번 추계 영성수련회는 유교와 선비의 마을로 널리 알려진 안동과 풍기를 다녀왔습니다. 안동의 고고한 선비 정신과 풍기의 아름다운 기운 속에서 영성을 위한 수련을 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한 목적지였습니다. 10월 7일, 3일간의 연휴를 앞둔 금요일, 아직은 불완전한 엔데믹 상황 속에서도 권후원 장로님 내외를 비롯한 30명이 넘는 실업인선교회 회원들이 환한 얼굴로 참여하였고 회장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안동으로 출발했습니다. 4시간이라는 예상 시간보다 한결 빠른 3시간

만에 도착한 첫번째 방문지는 바로 '안동소주 박물관'. 이곳은 우리 광림교회 김연박 장로님과 배경화 권사님이 2대째 운영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주 박물관으로 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안동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잘 알려진 명소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근대 한국인의 스피릿(Spirits)라 할 수 있는 소주의 양조 과정을 두 분의 안내로 견학도 하고, 안동의 명물 간고등어와 안동찜닭까지 애찬을 제공받았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안동 하회마을. 유쾌한 하회탈 공연을 관람하고 단아한 마을 내 산책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회원간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행선지인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서원 9곳 중에서도 빼어난 아름다움이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그다음 예정된 목적지는 유명한 안동의 수물마을 위 부교위를 걷는 이른바 베드로 체험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아쉬움을 뒤로하고 첫째날의 숙박과 영성수련회 기도회 장소인 소백산 풍기온천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짐을 풀고 저녁 식사 후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풍기 숙소까지 내려와 주신 1선교구 김정우

목사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러진 순서는 합심 중보기도. 말씀의 은혜로 심령이 뜨거워진 선교회 회원들은 모두가 두 손을 맞잡고 크게 원을 그리며 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진행될수록 점점 더 뜨거워진 기도회는 애초 1시간 반을 예상했으나 거의 3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가 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던, 개인적으로는 2022년 10월의 문턱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신앙적 사건으로 기억되기 충분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분석사의 건축물, 가이드의 역사 해설과 함께 둘러본 소수서원, 전통 메밀묵 점심 애찬을 끝으로 2022년 실업인선교회 추계 영성수련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오감'으로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며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더해 충만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육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귀한 영성수련회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성곤 권사(실업인선교회 부총무)

1선교구

은혜와 회복을 위한 스테반·마리아 영성수련회



은혜와 회복을 위한 1선교구 스테반·마리아 연합 영성수련회가 10월 8일(토요일) 일산 지역에 예비된 전원주택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더욱 더 모이기에 힘쓰는 1선교구 스테반·마리아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번 연합 선교회 모임이 기획되었다. 이번 영성수련회는 선교회 모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더 다채로운 은혜의 나눔을 가질 수가 있었다. 1선교구 연합회 총무인 문주

현 성도의 은혜로운 찬양인도와 온타임 선교회말씀(침경을 평탄케 하라, 눅 3:1-6) 나눔을 통해 마음에 한발 앞서 준비하는 인생, 회개와 순종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배 후 바로 이어진 중보기도 시간에는 각 회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며 "보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정성들여 준비된 애찬을 가진

후에는 뒤뜰 정원에서 마리아 회원만의 티타임 나눔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신앙을 우선 점검해야 함을 깨닫는 귀한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청명하고 좋은 가을 날씨를 허락하시고 모임의 순서 순서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선교구 뿐 아니라 광림교회 전체의 스테반·마리아 모임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모이기에 힘쓰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임민재 집사(1교구)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9



물 위를 걷는 예수 마 14:26~27

예수는 군중에게 설교하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일으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가 산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기도하는 동안 날이 저물었고, 어둠에 잠긴 갈릴리 호수에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폭풍은 거세어졌고, 배는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몰랐다. 밤이 깊어졌다. 배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람과 파도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지치고 말았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모든 방법과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폭풍은 당장이라도 제자들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일렁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물 위에 사람의 형체가 그들을 향해 움직여 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어둠의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것은

그들에게 유령으로 느껴졌다. “안심하여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승인 예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외쳤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너라.” 예수는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자 배에서 물 위로 발을 내려놓은 베드로는 가라앉지 않았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에게 다가가던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린 후 함께 배 위에 올라갔다. 그들이 배에 오자 그토록 험하던 폭풍이 순식간에 멎추었다. 제자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배에 오르자 예수는 피곤하여 잠시 눈을 붙

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등은 배를 다루기에 능숙했기에 노를 저어 돌풍을 피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잠이 든 예수 그리스도를 깨웠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마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거짓말처럼 호수가 잔잔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을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했다.

하늘나라 생명의 양식 요 6:35

예수와 제자들을 태운 배는 벳새다 근처의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아픈 사람들의 은인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율법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는 공동의 적이였다. 그들은 예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비판과 공격에도 의연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먹고자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라.”

◀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_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여 가르쳤다. 그의 제자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다. 카미유 코리의 작품.

▲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_ 폭풍에 휩싸여 두려워서 찢쩍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다. 아메데 바린트의 작품.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예수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그들이 다시 물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 주시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셔서 빵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며,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말씀이었다. “진실로 말하건대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